2025. 12. 8

금융 Weekly Insight

이번주 Fed 정례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 확대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5년 12월 둘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박준규 Analyst jun.kyu.park@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지난 주 핵심 키워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합의 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행.
-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는 1) 당정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의 확인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2) 금융사들 중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을 위한 연말 결산 배당성향 상향 노력에 보다 초점이 맞춰지는 계기가 될 전망. 다만, 3) 향후 기타 세부 사항의 조정에 따라 실제 영향은 변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투자자의 관점이 26년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26년은 25년대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보다 초점 필요. 한편, 단기적으로는 Fed 정례회의 등 금리 변동성 관련 이벤트가 일차적 관건.

금융 Overview

- 은행 - 은행주는 3.8% w-w 상승, KOSPI 4.4% w-w 상승을 소폭 언더퍼폼: 지난 주 은행주와 관련된 최대 이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통과에 따른 관련 영향 기대. 여전히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은행들의 '고배당 기업' 포함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다만, 대부분 은행들의 배당성향이 2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당초 예상한 만큼, 고배당 기업 포함을 위한 추가 노력이 크게 부담되지 않고, 오히려 배당주 성격의 강화 관점에서 주주 구성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고배당 기업 포함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다만, 은행들의 배당성향 강화를 위한 최대 관건은 연말 CET-1 비율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환율의 하향안정화 여부가 투자심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초점 필요.
- 증권 - 증권주는 2.7% w-w 상승, KOSPI 4.4% w-w 상승을 언더퍼폼: 증권 업종의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충족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는 시점으로 판단. 이는 1) 올해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결국 내년의 배당 증액 가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2) 발행어음/IMA/신용공여잔액 등 자본 확대의 니즈가 여전히 회사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 결국 내년초 주주환원 결정 시점까지 개별 회사들의 정책/의지 확인이 지연된 상황으로 판단. 다만,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4분기 실적 상황이 우려대비 견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주가 차원에서는 여전히 비중확대 접근을 권고.
- 보험 - 보험주는 2.6% w-w 상승, KOSPI 4.4% w-w 상승을 언더퍼폼: 보험 업종 내에서는 삼성화재(+8.4%)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결국 올해 배당 지급 가능 여부 및 자본여력 등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험 업종은 결국 내년 초 실손/자동차 보험 등 요율 조정 과정에서 인상 가능성 여부 및 폭이 모멘텀 강도를 결정할 전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이클 상 장기/자동차 보험 등 주요 라인 수익성 악화가 극대화된 현 상황을 투자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2/2) 주담대 순증과 신용대출 순증 역전현상** - 11월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는 0.6조원 증가. 이는 20개월 만의 최소증가 폭. 전세대출 또한 0.3조원 감소, 3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 - 주담대 및 전세대출의 성장 둔화 혹은 감소는 10.15 대책 등 부동산 대출 규제와 연말 은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기인. 실제로 은행들은 신규 주담대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점별 주담대 한도 설정 등을 통해 속도 조절 중. - 이에 실수요자들의 신용대출 쏠림 현상은 심화. 가계 신용대출은 11월 중 0.8조원 증가하며 2개월간 총 1.8조원 증가. 주담대 순증보다 가계신용대출 순증이 큰 것은 이례적인 역전현상. - 특히, 신용대출 신규가 쉽지 않은 만큼, 마이너스 통장이 최근 신용대출 성장세를 견인. -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올해 이미 관리 수준을 넘어선 만큼, 연말까지 신규대출 여력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언급.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연말까지 지속:** 11월 대출 동향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가 실제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물론, 12월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 이는 1) 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상회한 만큼, 연말까지는 분할 상환 등에 따른 자연 감소를 통한 관리에 보다 초점을 둘 여지가 크고, 2) 은행들의 판매채널 관리 강화가 11월 중하순에 이뤄진 만큼, 12월은 이에 따른 영향을 fully 받을 전망이기 때문. **NIM에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영향은 제한적:** 신용대출,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믹스 변화 관점에서 소폭이지만 NIM에는 긍정적 요인. 다만, 순증액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 판단.
	(12/2) 원화 코인 발행 주체 51% 룰 딜레마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 법안 중 핵심 규제이자 발행사 자격 요건으로 논의 중인 '은행 지분 51% 룰'이 현행 은행법과 충돌. 현행법 상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 - 이를 금융당국은 인식, 현실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도. 일례로, 은행이 51% 지분 보유하더라도 컨소시엄 내 최대주주는 플랫폼 기업 등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결국 현 시점에서 어느 한 곳도 독자생존은 불가능한 구조. 즉, 법안 구체화 시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른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원화 스테이블 코인 – 은행 없이 불가:** 51%룰 적용 시 모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이 지분을 51% 보유 필요. 즉, 은행의 대체가 아닌 은행의 보완 성격이 보다 강할 수 있음에 초점 필요. 물론,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은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안정성 및 신뢰도에 기인.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은행과의 협업 가능성에 보다 초점 필요. **다만, 법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 고려 시 실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구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인지 필요:** 다만, 51%룰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은행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들과의 충돌이 선결되어야 함. 더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간 이동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함. 즉,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절차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구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12/2) 은행 정기예금 금리 3%대 – 한달 새 큰 폭 증가 - 은행들이 특판 예금 등 일부 예금 상품의 금리를 3%대로 인상. KB가 최고 3.0%, 신한은행도 최고 3.1%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 - 이에 5대 은행의 11월 정기예금은 전달대비 6.4조원 증가하였으며, 2개월 연속 증가로 인해 9월말 대비 21.3조원원 증가. - 한편, 요구불예금 또한 전월대비 6.4조원 증가. 참고로, 이는 10월 21조원 감소 후 반등이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11월 말 기준 전월대비 7조원 넘게 감소.	**연말 정기예금 금리 급등의 지속성 판단은 다소 시기상조:** 과거 레고랜드 사태 직후 은행들의 4Q 정기예금은 5% 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 이후 매년 말 고금리 정기예금의 만기가 다소 집중되어 도래.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수신 재유치를 위해 예금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일부 확인 가능. 즉, 4Q들어 예금금리 상승을 단순히 머니무브의 큰 흐름 상에서 은행들의 불가피한 예금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시기상조라 판단. **추가적인 주가 상승 – 저원가성 예금 감소?:**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의 호황으로 저원가성 예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우려. 하지만, 지난 1년여간 KOSPI가 2000대 초중반에서 4천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저원가성 수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에 초점 필요. 즉, KOSPI 지수가 2배 수준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저원가성 예금은 증가한 만큼, 현 시점에서 급격한 저원가성 수신 유출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2/4) 전세대출은 급감, 전세 매물은 실종** -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규제 등의 여파로 전세난이 심화. 특히, 토허제 확대가 공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새로 주택 구매 시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취득 후 최소 2년간은 전세를 놓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 이에 전세 시장의 공급 여력이 줄어든 것. - 전세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4.4로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 참고로, 10월 해당 지수는 105.0으로 21년 11월 이후 4년여만에 최고 수준. - 전세매물 부족은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신용대출 우회 수요를 파생.	**기본적인 문제는 신규 전세 공급의 감소:**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전세대출 감소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신규 전세 공급의 감소. 즉, 규제 완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 **가계대출 총량규제 고려 시 주택 거주 행태의 변화도 고려 가능:** 한국 주택 거주 형태 중 전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유니크한 구조는 전세 구조.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전세 매물의 감소 등은 궁극적으로 주택 거주의 행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 필요. 이 경우 가능한 고민은 전세와 월세 중 세입자의 부담이 더 큰 형태가 무엇인가에 있을 것. 가령,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월세 부담보다 낮을 경우, 전세의 월세화는 세입자의 현금흐름 및 궁극적으로 구매 여력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 필요.
	(12/4) 은행 기업대출 부실 증가, 과징금 부담 가중 vs 생산적 금융의 딜레마 - 은행들의 3Q기업 무수익여신 잔액은 3.6조원으로 올해 들어 19.8% 증가. -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건전성 관리 목표가 충돌하고 있음을 우려. 가계대출 감축과 건전성 제고 압박에 과징금 부담까지 겹치며 은행들은 단순히 실적을 넘어 자본비율 하락 부담까지 가중. - 이에 은행들의 실제 생산적 금융 투입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언론은 보도.	**은행의 대출 여력은 자본, 그리고 근간은 실적:** 은행이 지속적으로 대출 공급을 늘리고, 특히 해당 대출이 보다 생산적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만약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적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CET-1 비율 하락 혹은 개선세 둔화가 이어지 경우, 은행들은 보다 RWA 계산 시 위험가중치가 낮은 대출을 중심으로 늘릴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증대. 결국 현재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유동성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실기는 오히려 경기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정책적 대안에 초점:** 결국, 이러한 기본적인 은행의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강화가 이뤄질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어떻게 도출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참고로, 최근 금융당국의 과징금 경감을 위한 기준 설정 등에 비춰볼 때, 긍정적 대안의 도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
	(12/4)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금융지주는 배당성향 미충족 전망 - 4대 금융지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군으로 떠올랐지만 제도 적용 요건을 충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는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중심의 밸류업 정책으로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기 때문. -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우리금융지주 제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 가령, KB금융과 하나금융의 25년 배당성향은 23.1%, 24.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반대로 생각해보면 연말 배당 성향 소폭 상향 통해 조건 충족 가능한 점도 고려 필요:** 해당 언론 보도에서 금융권 관계자의 언급은 이미 기존에 배당 총액을 공표한 가운데, 연말 결산 배당 총액 1,500~2,000억원 가량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으며, 무리해서 일반 주주와 약속한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무리라는 주장. 하지만, 1) 은행들의 25년 귀속분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이미 공표된 상황으로 배당성향 상향에 따른 영향이 없으며, 2) 2Q 25중 KB금융의 연간 배당 총액 인상 경험이 있었고, 다른 은행들은 연말 결산 배당 조정이 가능한 만큼, 3대 금융지주도 예외는 아님. 즉, 연말 결산 배당의 소폭 상향을 통해 보다 큰 주주가치 제고를 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택 가능하다고 판단. **다만, 관건은 배당강화 역량:** 다만, 3대 금융지주가 추가적으로 배당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 KB금융은 포뮬라를 통해서, 신한과 하나금융은 CET-1 비율 13% 이상의 기준 충족 필요. 즉, 3대 금융지주 모두 연말 CET-1 비율이 배당성향 추가 상향에 있어 관건. 여전히 20여일이 남은 가운데, 1) 4Q 중 RWA 증가율 관리과 더불어 2) 4Q 들어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한 환율의 연말 하향안정화 여부에 따라 CET-1 비율이 영향을 받는 만큼, 이에 초점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2/4) 신한지주 회장 연임 확정** - 신한지주 진옥동 회장이 사실상 연임을 확정. 12월 4일 회장후보 추천 위원회는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진옥동 회장을 단독 추천. 이에 29년 3월까지 추가 3년간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었음. - 신한지주는 23년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 특히, M&A없이 자체 성장을 통한 것은 물론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 부문도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실적 개선 및 이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기여한 것으로 보도.	**경영의 지속성 관점에서 긍정적:** 내부 출신 CEO의 연임은 경영 지속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 특히, 26년은 경기 회복 및 은행의 유동성 공급 역할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변화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경영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과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Update 및 비은행:** 향후 과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update 및 비은행 부문의 강화. 동사는 당초 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하였으나, 25년 이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즉, 목표치의 상향이 필요한 시점. 한편, 목표치 상향 및 이의 실행을 위한 최대 관건은 그룹 ROE의 제고. 하지만, 은행 ROE의 상승은 한계가 있다는 점과 동사의 비은행 부문이 올해도 책준형 신탁 상품에 대한 추가 충당금 등으로 부진했던 점을 감안할 때, 비은행 부문의 실적 회복, 더 나아가 이들의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한 ROE 상승 기여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증권	**(12/1) 만기 짧은 한투냐 금리 높은 미래냐, 막오른 IMA 대전** - 국내 첫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정면 승부를 펼칠 예정 - 한국투자증권은 만기 2년짜리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금리는 연 3% 중반~4%대가 유력 - 미래에셋증권은 만기를 3년으로, 이에 따라 금리도 연 4%를 넘을 것으로 알려짐 - 한편, IMA는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시에 상환 받는다는 점에서 금융소득 과세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	**IMA 사업의 초기 수익 기여는 운용보수 중심이 될 것:** 증권사 입장에서 IMA 사업의 성과 확인은 최소 2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 이는 1) IMA 투자자산의 경우 고객 자산을 별도 신탁하는 규정 상, 자산평가이익이 증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으며, 2) 자산 성과에 대한 성과보수 또한 만기 정산 시 인식될 것이기 때문. 따라서 IMA 비즈니스의 주 수익원은 운용보수(50bp 수준 전망)가 될 것이며, 발행어음 대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익 기여할 것으로 기대.
	(12/4) 고환율에 증권사 외환손익 적자, 4분기 더 나빠진다 - 3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에 증권사 외환손익이 악화된 것으로 집계 - 올해 3분기 국내 증권사 60곳은 외환거래에서 총 2,104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분기 7,075억원 흑자 대비 크게 감소 - 주요 손실 원인으로는 외화 부채 평가손익 악화 및 헤지 등 파생상품 운용손실 등이 작용	**외환 손익 변동성은 해외 조달 비중 높은 증권사에 집중:** 증권사의 외환 손익 변동성으로 주로 외화 기준으로 발행된 부채의 평가 손익 변동에서 발생. 커버리지 내 증권사의 경우 적극적인 해외법인 확장 및 현지 조달 전략을 추구한 미래에셋과 한투증권의 외환 손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해당 증권사들의 경우 세전이익 기준 5~10% 손익 변동성이 환율에서 비롯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여부가 점차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보험	**(12/2) 메리츠화재 초박빙 실적 격차에 보험료 인하 승부수** - 메리츠화재가 주력 장기인보험 상품인 5~10년 고지형 상품의 보험료를 최대 18% 인하할 예정 - 이번 보험료 인하는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가 가져가는 이익을 일부 줄여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는 것 - 일각에서는 주요 손보사 예실차 손실 확대된 상황에서, 메리츠화재가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해석	**메리츠의 차별화된 움직임에 주목:** 동사는 주기적으로 시장 경쟁 사이클 대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동사는 IFRS17 전환 초기(23~24년) 타사들이 경쟁적으로 신계약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훼손을 이유로 경쟁에 참여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음. 하지만 최근 경쟁사들의 손익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자, 신계약 시장에 M/S 회복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동사의 M/S 확보 움직임은 시장 판도를 흔들 만큼 강력하게 진행되었기에 지속적인 추이를 확인할 필요
	(12/2) 보험사들 내년 1월부터 장기보험 보험료 10%대 인상 검토 - 최근 생손보 보험사들이 장기보험상품군 중 건강보험 상품 위주로 10~12%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 - 배경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건강보험 판매 이후 해당 상품군의 손해율 급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 - 한편, 장기보험 매출 목표 또한 올해 대비 내년을 낮추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상황	**수익성 악화는 경쟁 강도 축소로 귀결:** 한편, 다수 보험사들의 경우 올해 장기보험 수익성 악화를 경험한 이후 보험료 인상에 들어가며 경쟁 구도 완화를 시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년 보험사들의 장기 보험 매출 및 신계약 CSM 수준은 올해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다만, 결국 과당 경쟁 관점에서의 경쟁 완화는 CSM 경험조정 및 중장기 보험 수익성 회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성 관점에서는 긍정적 변화라고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5-12-08 (월)		미국 11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미국 3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10월 산업생산 일본 3분기 GDP (수정치) 일본 10월 경상수지 일본 11월 은행대출 일본 11월 경기현황지수
2025-12-09 (화)	국무회의 개최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미국 3분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확정치 미국 10월 구인 및 이직(JOLTs) 보고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 일본 11월 공작기계수주 (예비치)
2025-12-10 (수)	11월 금융시장 동향 11월 고용동향	미국 FOMC 회의 발표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10월 도매재고지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일본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중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2025-12-11 (목)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월간 재정동향	미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30년 만기 국채 입찰 일본 4분기 대형제조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 OPEC 월간 보고서
2025-12-12 (금)	코스피200·코스닥150 정기변경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 11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월 최근 경제동향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독일 10월 경상수지 독일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영국 10월 산업생산 영국 10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일본 10월 산업생산 (수정치) 중국 11월 광의통화(M2)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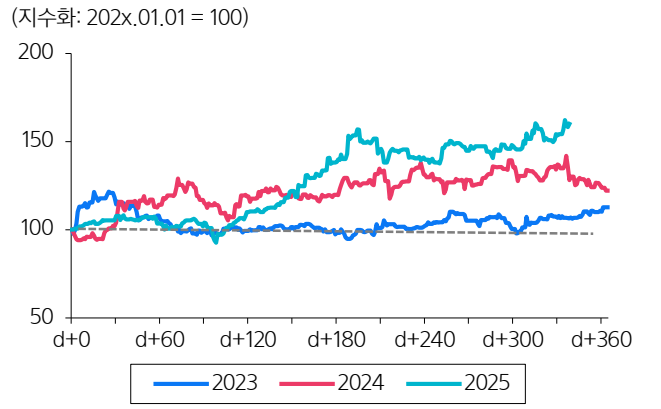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5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3,286.2	4,100.1						4.4%	2.4%	67.9%	70.9%
	KRX은행	176.0	1,334.5						3.8%	7.6%	52.5%	60.0%
	KRX증권	52.7	1,547.0						2.7%	(0.2%)	97.7%	109.9%
	KRX보험	80.3	2,677.0						2.6%	5.6%	34.6%	41.0%
	결제 지수**	1.359	n/a						(1.9%)	4.7%	48.9%	51.8%
은행	KB금융	49.9	130,700	52.6	0.9	10.7	8.2	17.9	4.7%	7.5%	52.3%	57.7%
	신한지주	38.9	80,200	45.3	0.8	10.2	7.5	20.9	2.8%	6.5%	61.0%	68.3%
	하나금융지주	26.5	95,200	44.1	0.7	10.4	6.6	11.2	2.0%	9.6%	59.7%	67.6%
	우리금융지주	20.9	28,500	34.7	0.7	10.5	6.5	5.2	7.3%	9.6%	77.1%	85.4%
	기업은행	16.8	21,050	32.0	0.6	9.1	6.5	4.6	2.4%	9.0%	46.9%	46.9%
	BNK금융지주	4.9	15,710	37.8	0.5	8.4	5.8	18.8	4.4%	8.7%	40.8%	51.9%
	JB금융지주	4.8	25,100	35.7	0.5	8.9	5.2	119.7	4.1%	11.1%	37.4%	54.2%
	iM금융지주	2.4	14,630	44.7	0.9	13.2	6.9	4.6	2.3%	9.0%	65.7%	78.9%
	카카오뱅크	10.5	22,000	45.0	1.5	7.0	22.5	5.8	1.6%	(1.8%)	(2.4%)	4.5%
증권	미래에셋증권	12.5	21,850	40.8	1.0	9.5	13.7	25.9	0.0%	(11.7%)	155.9%	172.1%
	NH투자증권	7.6	21,400	41.2	0.8	10.8	8.2	22.6	3.6%	5.4%	53.2%	53.4%
	한국금융지주	9.1	164,000	19.4	0.8	17.7	5.3	73.3	2.2%	(3.0%)	113.5%	130.0%
	키움증권	7.6	287,500	28.2	1.1	17.7	6.7	25.1	5.3%	1.8%	137.4%	147.4%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4	111,000	50.6	2.1	23.5	9.3	9.9	2.2%	(2.5%)	10.7%	6.7%
	삼성화재	24.0	522,000	42.6	1.3	13.2	10.0	6.1	8.4%	11.3%	33.2%	45.6%
	삼성생명	31.6	158,200	44.8	0.7	6.8	11.9	11.5	3.5%	5.5%	55.9%	66.9%
	DB손해보험	8.9	125,200	25.1	1.2	20.3	5.9	-5.4	0.6%	(2.4%)	21.1%	21.8%
	한화생명	2.7	3,085	0.0	0.2	5.8	4.2	-11.7	2.5%	2.7%	22.7%	25.4%
	현대해상	2.7	30,250	0.0	0.5	17.7	2.9	-15.8	0.7%	10.4%	17.0%	22.5%
결제	카카오페이	6.6	48,500	n/a	n/a	3.7	104.8	흑전	(2.2%)	(4.5%)	69.6%	84.8%
	NHN KCP	0.6	15,670	n/a	n/a	17.3	12.8	9.1	(3.9%)	3.2%	105.9%	120.7%
	KG이니시스	0.3	10,690	n/a	n/a	8.9	4.3	68.0	(0.3%)	2.5%	18.8%	20.9%
	KG모빌리언스	0.2	4,815	n/a	n/a	11.2	4.9	18.0	0.1%	(0.6%)	6.5%	1.5%
	나이스정보통신	0.3	25,250	n/a	n/a	7.4	7.0	174.3	(0.4%)	16.1%	40.0%	40.7%

참고: 12/5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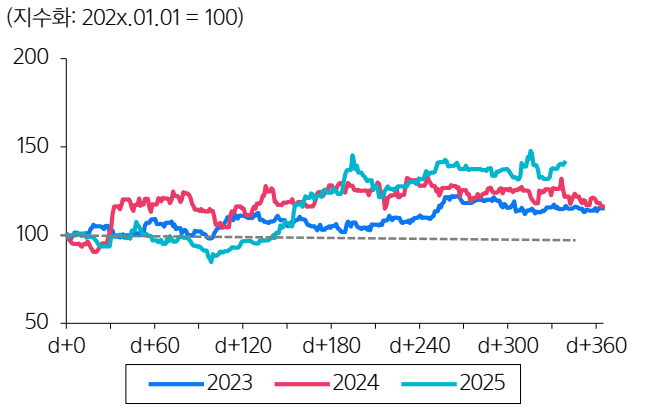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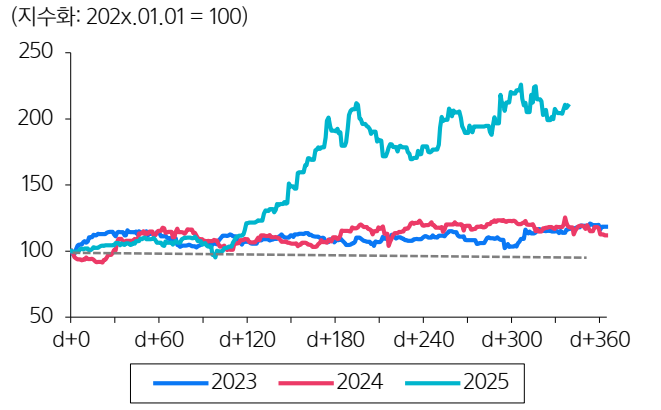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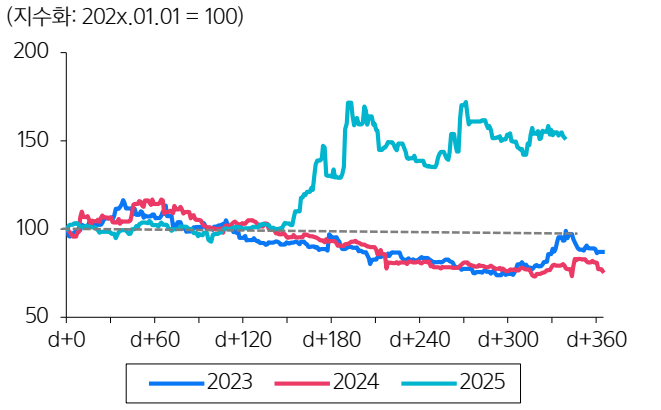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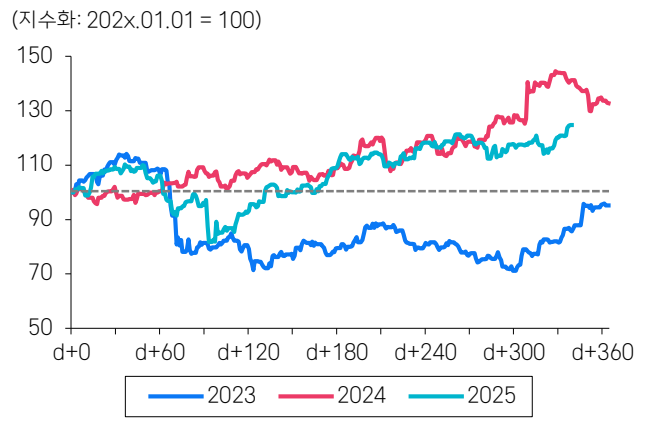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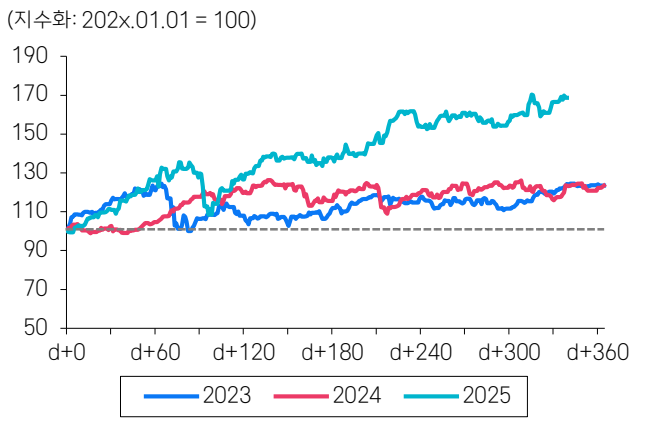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5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57.6	83.2	2.5	16.7	15.5	2.9	0.6	0.3	27.4	31.4
		Bank of America	394.0	27.9*	1.4	10.6	14.1	18.1	0.6	1.4	15.4	22.8
		Citigroup	194.8	122.3	1.0	7.6	14.3	27.9	5.1	8.0	50.9	54.7
		Wells Fargo	282.0	116.8	1.7	12.3	14.2	18.0	4.6	4.4	20.9	27.9
		PNC Financial	77.6	59.4	1.4	12.2	12.5	15.4	3.7	7.4	(5.2)	2.6
	유럽	Banco Santander	164.0	65.6	1.4	13.2	10.4	13.5	2.3	6.9	103.7	111.9
		Unicredit	118.0	88.4	1.5	16.6	9.3	11.9	1.5	3.3	65.9	68.9
		BBVA	126.7	54.3	1.8	17.8	10.3	4.9	1.7	8.0	97.6	99.7
		ING Group	79.6	109.8	1.4	12.1	11.5	(1.8)	1.3	2.7	52.1	51.2
		Lloyds	75.1	94.6	1.4	11.0	15.4	0.0	(0.4)	5.7	80.4	74.8
		Barclays	80.4	63.4	0.9	9.7	11.8	0.0	1.0	7.3	64.0	62.0
	일본	Mitsubishi UFJ FG	191.8	63.5	1.4	10.2	13.4	16.6	3.5	8.3	38.6	35.8
		Sumitomo Mitsui FG	121.6	57.3	1.2	10.0	12.5	29.6	4.2	17.6	30.1	30.0
		Mizuho FG	90.3	64.2	1.3	10.4	12.7	26.9	2.8	11.5	47.6	45.3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75.2	30.1*	0.6	9.3	6.3	2.0	(1.7)	0.0	33.3	21.5
		China Construction Bank	274.4	29.9*	0.6	10.0	6.2	(1.8)	(2.3)	(1.8)	29.5	23.1
		Agricultural Bank of China	375.5	31.1*	0.7	10.1	7.4	2.7	(2.7)	(6.9)	37.6	28.0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90.5	N/A	1.5	9.0	19.8	(38.4)	(1.9)	1.0	7.2	11.0
		AIG	41.6	204.0	1.0	9.2	12.1	흑전	1.1	0.1	1.9	5.8
		Travelers Insurance	62.7	65.8	1.9	19.1	11.1	17.3	(4.1)	0.4	7.6	16.6
	유럽	Allianz	162.4	78.4	2.3	18.2	12.9	12.6	(1.5)	4.2	21.6	23.9
		AXA	95.3	61.8*	1.7	17.5	8.9	23.6	(0.9)	2.8	13.4	12.3
		Generalli	60.9	56.9*	1.6	13.7	12.3	13.5	(1.3)	2.9	20.2	23.8
	일본	Tokio Marine	68.2	40.6*	2.0	20.1	10.6	(4.5)	(0.6)	(6.2)	(5.0)	(4.4)
		Daiichi Life Insurance	28.9	47.6*	1.2	11.4	11.4	(7.7)	(0.3)	11.5	12.1	14.8
	중국	Ping An Insurance	151.3	32.7*	1.1	15.1	7.2	17.5	6.6	4.3	29.3	31.3
		China Life Insurance	160.7	14*	1.3	28.5	4.9	51.2	5.1	9.9	83.5	92.2
		PICC P&C Insurance	49.8	33.2*	1.3	16.6	8.4	43.3	(1.3)	(9.6)	40.8	42.2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66.2	106.6	2.4	14.3	17.5	20.3	3.5	8.7	42.5	49.2
		Morgan Stanley	280.5	66.7	2.8	16.1	17.9	24.2	4.0	8.7	35.8	40.4
		Charles Schwab	171.5	92.8	3.7	20.6	20.3	54.7	1.2	(1.5)	15.2	26.8
		Robinhood	118.8	39.5	13.3	21.5	64.9	30.3	2.7	1.2	216.7	254.1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55.1	78.2	8.3	34.5	23.9	10.6	1.4	0.5	21.8	24.8
결제	미국	VISA	648.7	21.7*	16.2	63.1	26.1	24.4	(1.0)	(1.4)	6.5	4.8
		MasterCard	489.9	18.6*	60.4	203.6	33.4	17.5	(0.9)	(1.2)	3.2	3.6
		PayPal	58.3	2.6*	3.0	25.3	12.1	28.6	(0.7)	(5.9)	(30.7)	(27.0)
	유럽	Adyen	49.5	0*	8.0	22.5	39.6	15.0	0.7	0.9	(9.6)	(6.1)
핀테크	미국	Block	37.1	0*	1.6	6.7	24.7	(45.7)	(8.5)	(6.6)	(37.8)	(28.1)
		Upstart	4.5	0*	6.2	14.4	96.3	N/A	4.0	21.1	(39.4)	(24.1)
		Affirm	22.4	0*	5.7	10.6	67.2	574.4	(4.2)	(7.6)	(5.4)	11.6
	중국	LuFax	2.4	N/A	N/A	(2.8)	N/A	흑전	0.0	0.0	9.2	10.9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12/5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12월 5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2월 5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